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이화여대 대학교회 강당에서 〈화엄경〉 입법계품을 강의 하고 있는 김흥호 목사.

◇김 목사는 유 · 불 · 도의 가르침을 좇아가며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처럼 오랜 구도적 삶을 살아왔다.

목사가 40년 불경강의 한 까닭은?

김 흥 호 목사

“부처·예수 가르침은 하나”

‘동양’ 이해 앞서야 ‘서양’ 이해

일요일 아침, 이화여대 대학교회 지하 강당에는 젊은 대학생에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까지 백여 명의 남녀가 모여 강의를 듣는다. 그들의 손에 들린 교재는 〈화엄경〉 강사는 이화여대 전 교목(校牧)인 김흥호(84세) 교수다. 벌써 40여 년 전부터 신약성서와 함께 〈법화경〉 〈원각경〉 〈벽암록〉 등의 불경과 조사어록을 비롯하여 〈주역〉 〈논어〉 〈전등록〉 〈노자〉 등의 동양고전을 강의해오고 있다.

목사가 동양고전을 강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양인들은 예수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신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이전의 유대민족의 기록인 구약성서를 읽는다. 동양인인 우리가 예수의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동양고전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신학대학에서 ‘불교의 구원관’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기독교가 동양에 들어왔으면, 동양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거울에 기독교를 비춰보고, 거꾸로 기독교의 거울에 유, 불, 도교를 비춰보면 서로의 모습이 보다 선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라야 진정한 동양의 기독교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기독교는 서양의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동양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 화분을 깨트려, 기독교의 묘목을 비바람 치는 거친 동양의 들판에 심고자 한다.

“〈화엄경〉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니까. 여기 이 보살은 지옥에 가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고, 스스로 인질이 되어 중생들을 구속해내려는 서원을 해요. 그런데 구속(救贖)이란 말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화엄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시킨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평양이 고향인 김흥호 교수는 1919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3 · 1운동에 참여한 부친은 3년간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나왔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그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그는 14살에 평양고보에 입학했는데, 마을 교회에서는 인텔리라 하여 그때부터 담임목사였던 부친 대신 설교를 시켰다. 어린 나이에 대중에게 설교해야 하는 진땀나는 경험을 했던 그는 내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신은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 남들보고는 믿으라고 설교했기 때문이다.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이것은 그대로 그의 화두가 되었다.

그는 평양의 큰 교회에 나가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안창호나 조만식 선생의 연설회에도 참가했다. 당시 식민지하에서 의기소침한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교회에선 부흥회가 크게 유행하였다. 그는 부흥회마다 열성적으로 참여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와세다 법대로 진학한 그는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가 주창한 무교회주의에 심취한다. 하지만 그래도 화두는 풀리지 않았다.

정인보·이광수·유영모 등 찾아 사숙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선생을 가지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그는 광복 후 귀국해서도 계속 선지식을 찾았다. 6 · 25 전쟁 직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그는 서울에서 정인보 선생을 만나 양명학을 배웠다. 이어 이광수를 찾아갔더니, 춘원은 그에게 오산학교 동료교사로 동양학의 대가인 다석(多夕) 유영모를 소개했다. 함석헌의 스승으로 알려진 다석은 김흥호에게 기독교를 동양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뜨게 해준다. 다석은 하루 한끼만 먹고, 한 번 앉으면 긴 삼매에 들고, 평생 걸어만 다니고, 죽을 때까지 농사일을 놓지 않았던 숨은 참사람(眞人)이었다. 김흥호는 훗날 다석의 도를 자신의 것으로 체득한 후 이렇게 요약하였다. (한글 풀이는 필자)

一坐天地通
새벽이면 일어나 앉아 삼매에 들어 공간을 초월하고
一仁有無通
낮에는 농사짓고 제자 가르치며 존재를 초월하며
一食晝夜通
하루 한 끼 저녁식사로 시간을 초월하고
一言生死通
깊은 잠 속에서 신의 말씀을 듣고 생사를 초월한다.

12년 걸려 불교·기독교 사상 정립

작년부터 시작한 화엄경 강의는 이제 입법계품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재동자가 걸어간 구도의 50단계(화엄경 五十地)를 나의 경험에 비춰 보겠습니다. 먼저 십신(十信)은 귀가 뚫리는 단계입니다. 구도의 첫걸음은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나의 경우는 유영모 선생의 강의에 나간 지 6년 만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주(十住)는 눈이 떠지는 단계로, 동서의 고전을 읽고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의 경전을 읽고 정리하는데, 각 3년씩 총 12년 걸리더군요. 다음 십행(十行)과 십회향(十廻向)은 코가 뚫리는 단계로, 지행일치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 유영모 선생께 배운 대로 일식 일좌를 실천했지요. 12년 잡고 시작했지만, 일단 몸에 익으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십지(十地)는 입이 열리는 단계로, 그 동안 공부한 것을 간추려 진리를 주위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색〉이란 월간 개인잡지를 12년간 144호로 발간했습니다. 그 뒤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고전 강의를 계속해왔습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 혹은 예수님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인생은 누구나 이런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무척이나 병약했던 김 교수는 깨달음을 얻고 일식(一食)을 실천한 이후로는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 수십 년 간 매주 일요일 아침 ‘제소리’를 전하는 김 교수의 모습은 그가 좋아하는 여정(天童如淨) 선사의 시 ‘풍경(風磬)’의 이미지를 빼 닮았다.

혼신을 다해 달랑 허공에 매달려 (渾身似球掛虛空)
오로지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하네 (一等爲他談般若)
사방에서 바람 불어올 때마다 (東風西風南北風)
땡그렁 땡그렁 땡땡그렁 (滴了滴了滴滴了)

글=김홍근 (문학평론가)
사진= 임민수 기자